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
바이오식품과

×

김진이 주임

×

KCL 생물자원평가센터

미래 농생명 산업을 선도하는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는 현장 실무 중심의 융·복합 교육으로 미래의 명장을 육성하고 있다. 마이스터고의 창의 융합형 인재로서 그 능력을 KCL에서 맘껏 펼치며 성장하고 있는 김진이 선배를 만났다.

"마이스터고는 일찍 나의 적성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야"

Q.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 바이오식품과 2기 졸업생 김진이입니다. 마이스터고에는 익산에 있는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친오빠의 추천으로 진학하게 되었어요. 현재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라는 시험 인증 연구원에서 항균·항곰팡이 시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손소독제, 주방세제 등 사용하는 제품의 항균력이 몇 퍼센트인지 시험하고 결과서를 발급해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Q. 바이오식품과에서는 어떤 걸 배우나요?

미생물이나 기기분석 등 품질관리 쪽을 배워요. 1학년 때는 인문 수업하고 전공 수업을 같이 들어요. 주로 기초를 배우죠. 실험 때 사용하는 기구들 이름이 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미생물 이름은 뭔지 등이요. 2학년 때는 인문이 줄고 전공이 늘며 더 깊게 배워요. 과도 품질과와 제조과로 나뉘죠. 기업에 가서 실제로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견학을 가기도 하고요. 3학년 때는 교실에서 수업받기보다는 거의 실습실에서 살아요.(웃음)

Q. 학교 다닐 때 좋았던 점이 있다면?

종종 외부 대학이나 기업에서 학생 탐방을 오거든요? 그때 실습실을 보며 고등학교 실습실이 웬만한 기업이나 대학 실습실보다 잘 돼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급식도 진짜 맛있었고요. 식품 가공 시간에 음식을 만드는데 선생님께서 학생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만들게 해주셨어요. 최근에는 탕후루를 만든 후배들도 있었어요. 식품 건조기도 있어서 고구마말랭이도 만들어봤고 홍삼을 만들기도 했는데 이런 건 주변에 나눠줄 수 있어서 부모님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Q.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나요?

3학년 때 진행했던 개인 프로젝트가 기억에 남아요. 건강기능식품 수업 때 동결건조하는 법을 배웠는데 상추는 색이 안 예뻤거든요. 예쁜 색이 나올 수 있는 파프리카를 분말로 만들어 화장품을 만들고 성분을 분석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11시까지 실습실에서 시험하곤 했는데 3~4개월 정도 걸렸죠. 힘들었지만 칭찬도 많이 받았고 아직도 학교에 제 프로젝트가 전시되어 있다는 얘기도 들어 뿌듯해요. 그리고 학교에서 성적순으로 일본, 이탈리아에 해외 연수를 보내줬는데, 일본 대학에 가서 화학 전공 교수님께 수업도 들어보고 놀러 다녔던 것도 즐거운 경험이었어요.

처음에 긴장할 수도 있지만 너무 겁먹지는 마

Q. 취업을 위해 어떤 것들을 준비하셨나요?

포트폴리오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학교를 통해 취업을 나가면 기업에서 포트폴리오를 많이 보거든요. 정말 사소한 것까지 다 모았어요. 수행평가 테스트 시험지, 실습 보고서부터 가정통신문, 취업 박람회에 갔을 때 받은 자료까지 다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보일까 생각하며 다 정리해뒀죠. 덕분에 학교의 모든 과가 참여하는 커리어 포트폴리오 발표 때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어요.

Q. KCL에는 어떻게 입사하게 되셨나요?

전국의 마이스터고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 인력 양성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과정을 수료하면 연구원이나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제도였죠. 제 취업 의지가 정말 강해서 선생님께 추천받을 수 있었어요. 기초 인력 양성 사업은 KOTICA라는 시험 인증 기관에서 담당하는데 KOLAS 관련 수업을 3개월 정도 들어요. 처음에 취업할 수 있는 업체 리스트를 주시는데 미생물 분야로 갈 수 있는 KCL이 눈에 들어와서 취업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연구원에 이 사업으로 들어온 분들이 약 50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Q.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중학교 친구들이라면 학교를 통해 취업할 수 있는 취업처가 어디인지 찾아보고 오면 도움이 될 거예요. 원하는 취업처에 맞춰 약간은 계획을 세우고 오는 걸 추천해요.

후배들에게는 대학 진학보다는 꼭 고졸 취업을 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기업은 대학 진학자들에게 조금 더 기준이 까다로운 편이에요. 반면 특성화고 친구들은 학교에서 이미 어느 정도의 경험을 쌓고 오니 흠잡힐 게 없어요. 너무 어리기도 하니 면접에서 조금 실수하더라도 귀엽게 봐주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학에 가서 정말 열심히 할 자신이 없다면 고졸 취업을 추천해주고 싶어요.

선배가 말한다!

취업 의지가 강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

마이스터고는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인문계보다 지원도 많이 해줘. 다양한 지원 제도를 이용하려면 취업 의지가 강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리고 책임감도 필요해. 취업 후 태도가 좋지 않으면 취업처에서는 앞으로 그 학교 학생을 뽑지 않아서 후배들의 취업이 힘들어지거든.

꼼꼼하고 계획적인 사람

우리 과는 시험을 많이 진행해. 그중 미생물의 경우 사람 손을 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오염돼버려. 기기 분석할 때도 사용하는 물질이 조금만 달라져도 결괏값이 아예 바뀌어 버리거든. 꼼꼼하고 계획적인 친구들이 잘 맞을 거야.

바이오식품과와 유사한 과, 어느 학교에 있을까?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
바이오식품과, 스마트팜산업과, 종자산업과

정읍제일고등학교
바이오식품산업과, 기계과, 산업기계과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식품과학과, 산업기계과, 농업토목과, 반려동물과, 스마트팜과, 산림조경과, 작물산업과

나, 이런 상도 받았어

커리어포트폴리오 발표회 동상
전공탐구발표회 금상
교내 글쓰기대회 우수상
1년 개근상(1,3학년)
교내 봉사상, 선행상, 영농상,
교내 가정의 달 학생 표창 선행상

선배의 자격증

식품가공기능사 | 화학분석기능사